

제32회 일본 전문가 초청 세미나

강사: 김양희

소속: KIEP(대외 경제정책 연구원)

주제: 한일 FTA 의 주요 현안과 전망

일시: 2005년 11월 29일 (12 : 00 - 14 : 00)

*강연 내용

2004년 들어 동아시아가 전 세계적인 FTA 체결 움직임을 주도하고 있다. 이런 아시아 각국의 FTA 전략은 궁극적으로 동아시아 FTA 지향하며, 동아시아 FTA에 기반한 동아시아 공동체(EAC) 논의는 동아시아정상회의의 개최를 계기로 논의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다자주의의 대안으로 제시된 FTA 체결이 과연 긍정적인 것인가, 어느 정도 경제적 효과를 내고 있는가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있지만, 글로벌화가 갖는 부작용을 일국 차원의 대응이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하자는 식의 여러 가지 체결 동기가 있다.

1. 최근 동아시아 지역의 FTA 추진이 활발해진 배경

경제적으로 역내국간 상호의존도 증대, 중국의 부상 등 지역의 성장 잠재력의 극대화 필요성, 세계적인 지역통합의 확대와 심화 추세에 대응하는 안정적인 수출시장의 확보 등을 들 수 있다. 비경제적으로는 중국의 급부상에 대한 대응마련의 일환으로의 FTA 체결과 이에 대한 중국의 반작용, 일본과 중국 간의 역내 FTA 주도권 경쟁 등이 있다.

동아시아 FTA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각국간의 소득 격차를 해소하고, 일중간 패권경쟁과 상호불신 등으로 명확한 구심점의 부재 등이 극복되어야 한다. 일본은 경제력에 비해 정치적인 리더쉽이 부족하고, 중국은 반대의 유형이기 때문에, 중견세력인 한국이 중재, 가교 역할을 수행하면, 강대국인 일본과 중국의 공동 견제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2. 한국의 FTA 체결논의

칠레는 2004년에 FTA가 발효되었고, 일본, ASEAN 등이 단기적으로 추진 대상이다. 싱가포르와는 실질적으로 타결되어 국내발효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 일본과의 FTA 추진 현황을 보면, 1998년 FTA의 기대효과에 대한 양국 연구기관 간의 공동연구 실에 합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후 다양한 양국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 2003년 10월 양국은 연내에 협상을 개시하고 2005년 말까지 체결하기로 하여 6차에 걸쳐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일본은 농수산업계의 소극적인 태도, 일방주의적 태도 등의 문제가 있고, 한국은 동태적 효과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현실적인 협력의제를 제시하려는 노력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 6차 회의를 끝으로 협상은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

* 한일간의 관세 철폐 논란

국내기업의 대일 의존도, 실질적인 관세부과 비중, 관세수준 등을 감안하면, FTA의 정태적인 효과의 발생은 예상만큼 크지 않다. 또한 개방의 충격은 협상의 수위를 조절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의 협상능력, 개방에 대비한 국내의 산업정책적 대응 마련이다.

* 일본 비관세장벽을 둘러싼 논란

양국 NTB의 존재는 한일 FTA를 체결하는데 큰 장애로 판단되어 왔으나, 일본의 NTB를 둘러싼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본격적인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다. 그러나 사실은 NTB의 존재는 오히려 FTA 체결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실제로 실태조사가 이루어진 결과, 한국기업의 경우는 일본보다 중국의 NTB가 더 큰 문제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일 양국은 한일FTA 체결로 합리적이고 투명한 NTB 해소와 분쟁해결의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양국의 NTB 제거가 용이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 한일 FTA의 외국인투자 유입 효과를 둘러싼 논란

한일 FTA 체결이 외국인 투자 환경에 미치는 효과는 예단하기 곤란한 부분이지만, FTA 체결은 기본적으로 외국인 직접 투자(FDI)를 이끌어 내는데 긍정적인 환경을 제공할 것이며, 국내에서 중국 및 일본과 차별화된 투자환경 조성 및 기술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

* FTA 체결 대상국을 둘러싼 논란

한일 FTA는 경제적 기대효과가 가장 큰 동아시아 FTA에 이르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출발점이고 전략적인 교두보이므로, 한일 FTA 자체를 부정하기 보다는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3. 한일 FTA 추진방향

1) 산업발전적 시각에서 본 한일 FTA

국내 산업정책과 연계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고, 한일 FTA가 국내산업의 양극화와 경쟁력 제고를 저해할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 산업발전전략과 연계된 한일 FTA 양허안을 관철시킬 때에 거시적인 효과는 약간 감소하지만, 국내 주력산업의 발전은 오히려 촉진될 수 있다.

2) 한일 FTA 추진의 기본 방향

한일 FTA 양허안이 실제 우리 제조업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국내대책이 수반되어야 하고, 국내경쟁력 강화정책과 관련해, 개별 기업의 경쟁력 강화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연계강화와 클러스터 강화, 대일협력의제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의제 발굴 건설적인 대안의 제시가 필요하다.